

박상현의 맛있는 이야기



유명 음식점에서 줄을 서는 당신들

고정 출연하고 있는 라디오 프로그램 등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곱창'을 소재로 하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했다. 진양지는 MBC의 예능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였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그룹 멤버가 동네 곱창집에서 혼자서 2-3인분의 곱창구이와 전골을 아주 아무지도 맛깔나게 먹었다. 출연자들은 너 나 할 것 없이 비명을 질렀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은 일제히 곱창집으로 향했다. 덕분에 그 가수는 '곱창 대란'의 주인공이 되었고 순식간에 '곱창 여신'으로 등극했다. 공급은 일정 한데 수요가 갑자기 늘어나니 곱창집 주인들은 '손님이 몰려도 팔 곱창이 없다'며 불렀을지 할 정도다.

최근 들어 이런 현상이 부쩍 늘고 있다. 그전까지는 맛집 파워 블로그나 음식 관련 프로그램을 통해 소개된 음식점을 찾은 것이 일반적이었다. 소비자는 파워 블로그와 음식 관련 프로그램이 가진 전문성과 권위에 주로 의지했다. 하지만 유명 연예인이 일상에서 즐겨 먹는 음식에는 개인의 취향과 기호가 있을 뿐이다. 과연 연예인의 취향과 기호까지 따라 하는 대중의 호기심은 대체 무엇으로 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선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자. 사례 하나.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가장 먼저 먹는

음식은 모유다. 영아의 입장에서 믿을 사람은 엄마밖에 없고 그가 주는 음식은 안전하다고 믿는다. 모유나 분유를 떼고 이 유식을 시작하는 유아기로 접어들면 한 가지 탈레마에 빠진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처음 대하는 모든 음식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다. 심지어 두려워한다. 이를 '푸드 네오편애'라 한다. 이때 역시 유아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은 엄마밖에 없다. 엄마는 아이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먹는다. 아이는 엄마의 표정을 살핀다. 엄마는 최대한 맛있다는 표정을 짓는다. 아이는 그 표정을 믿고 이유식을 받아들인다. 인간은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심을 떨쳐 내기 시작한다.

사례 둘. 다크멘터리 촬영을 하다 보면 촬영 팀과 한 달 가까이 숙식을 같이 하거나, 1년 넘게 작업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때 출연자인 내 표정을 가장 자세하게 살피는 사람은 촬영 감독이다. 촬영 감독은 나도 모르는 미묘한 표정 변화나 얼굴 근육의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는다. 출연자인 나는 어떤 음식을 먹든 항상 맛있다는 표정을 짓는데 촬영 감독이 보기에는 각기 다른 모양이다. 내가 정말로 맛있다고 느끼는 때와 맛있는 척하는 때를 귀신같이 가려낸다. 전자의 경우 촬영 감독은 '진짜 맛있나 봐요'라며 자신도 그 음식은 먹는다.

사례 셋. 일요일 저녁 시간에 방송되는 KBS의 간판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이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아주 높던 몇 년 전. 출연자 몫이 L사의 햄버거를 먹었다. 저녁 메뉴를 고민하던 시청자들은 일제히 햄버거 배달을 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당시 L사는 자체 배달 시스템이 완벽되지 않은 데 반해 경쟁 브랜드인 M사는 배달 시스템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다. 결국 그날 저녁 전국에 있는 M사의 매장은 배달 주문으로 북새통을 이뤘다는 것이다.

세 가지 사례는 각각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원리는 사실 동일하다. 식품공학자 최낙언은 그의 저서 '맛 이야기'에서 "사실 뇌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뇌가 세계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따라하기'다. 뇌에는 따라하기 전문 뉴런인 미러뉴런이 있다"라고 했다.

이탈리아의 신경심리학자 자코모 리츨라티 연구 팀은 원숭이가 손으로 물체를 잡을 때 관찰하는 신경세포를 찾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한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원숭이나 사람이 동작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마치 거울에 비추듯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발견하고 이를 '미러뉴런'이라고 했다. 그리고 원숭이와 거의

동일한 뇌 구조를 가진 인간에게도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결국 인간의 뇌는 애초에 상대의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그것을 따라 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덕분에 인간은 새로운 음식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상대의 표정을 통해 음식의 맛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방송에서 연예인이 먹는 모습만 보고도 햄버거를 주문하거나 곱창집 앞으로 향하는 것이다. 일단 따라하기로 결정한 순간, 무엇을 왜 먹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최낙언은 또 다른 저서 '감각, 착각, 환각'에서 "인간이 가진 탁월한 흉내 내기 능력은 학습 능력과 문화의 기반이 되었으며, 다른 사람의 의도와 행동을 예측하고 욕망을 욕망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우리의 뇌가 세계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관여하는 것이 '따라하기'다. 뇌에는 따라하기 전문 뉴런인 미러뉴런이 있다"라고 했다.

그러니 유명 음식점 앞에서 줄을 서서 있는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시라. 당신을 잡을 때 관찰하는 신경세포를 찾던 중 놀라운 발견을 한다. 자신은 움직이지 않지만 다른 원숭이나 사람이 동작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마치 거울에 비추듯 반응하는 신경세포를 발견하고 이를 '미러뉴런'이라고 했다. 그리고 원숭이와 거의

※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고



남재철 기상청장

날씨는 물의 순환 과정이다

이 물을 이용한다. 물은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언제, 어느 곳에서나 열을 얻어 끊임없이 증발하거나 식물의 잎을 통해 증산된다. 이렇듯 물은 증발과 응결이라는 대기 과정을 통해 자신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의 생명이 유지되도록 돕는다. 지구에 있는 물은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순환하고 있을 뿐이다.

지구 전체에서 수증기 형태로 존재하는 물은 0.001%에 불과하지만, 이 기체가 태양 에너지를 받으면 기류가 이동하며 기후 변화하며 기상 현상을 일으킨다. 기상청은 이러한 기상현상을 감시하고 예측하는 국가적 임무를 맡고 있다.

얼마 전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 남해상을 통과했다. 태풍은 열대 지방의 남치는 열과 수증기를 온대 지방으로 운반함으로써 에너지의 양극화를 완화해 지구 대기를 안정시키는 지구 시스템의 중요한 수행자이다. 그러나 이러한

물의 순환 과정에서 '쁘라삐룬'은 많은 비를 뿌려 남부 일부 지방의 주택과 농경지에 피해를 줬다.

기상청은 물과 대기의 순환 과정만을 예측하는 단순 기상 예보 생산자의 고전적 틀을 넘어 기상 현상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 영향 예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강수에 대한 영향 예보는 기존의 기상 예측 기술에 더해, 지상에 내린 빗물이 어디로 어떻게 흐르고 빠져나갈 것인가에 대한 방재적 관점의 기상기술까지 요구된다. 가뭄과 홍수라는 극단 기상 현상 출현이 잦아지고 있는 요즘 이와 같은 물의 기후 패턴은 수문 분야에 대한 인식과 정책적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최근 일본 서남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리며 방재 강국 일본을 속수무책으로 만들었다. 일본의 폭우 재난은 주변 기압 배치에 따라 우리나라에 울 수

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기상청은 깊이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 현상을 확률에 의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과거 경우 지진에 이어 나타난 포항 지진의 사례에서도 '빈도'라는 확률적 프레임은 우리의 허를 찌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서로 혼합될 때 그 수증기가 언제, 어디서, 어떤 비로 변할 것인가에 대한 수문학적 이해는 영향 예보의 중요한 바탕이 된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인공 지능 등과 같은 과학 기술의 출현은 기상 기술이 진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기상청은 기상 현상으로서의 물의 순환과 다변하는 대기, 이로 인해 일어나는 홍수, 가뭄 그리고 수자원 이용 방안 등의 종합적인 기상 기후 정보를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료칼럼



김동규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원장

여름철 식중독 예방하려면

음식이 상하기 쉬운 여름철에 주로 발생한다. 흔히 여름만 되면 뉴스에 나오는 식중독은 주로 세균성 식중독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도록 하자.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는 원인균들은 살모넬라균, 포도상구균, 장염 비브리오균, 0-157균, 캄필로박터균 등이 있다.

살모넬라균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상한 우유, 달걀, 닭고기, 돼지고기, 쇠고기 등을 먹고 발생한다. 특히 최근에는 집에서 애완동물을 많이 키우면서 개, 고양이, 녹색거북이 등으로부터도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배가 심하게 아프면서 설사, 구토, 발열, 오한 등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할 때에는 변이 피나 점액이 묻어나올 수도 있다.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크림, 썰리드, 햄 등을 먹고 많이 발생하며, 주로 설사만 일으키고 대부분은 하루 정도 지나면 회복된다.

장염 비브리오균 식중독은 회 등 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고 발생하며 복통, 발열, 설사를 일으키지만 이 균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익혀서 먹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생선을 회로 먹는 경우에는 가열할 수 없으므로 구입한 즉시 5도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해야 한다. 0-157균 식중독은 주로 오염된 햄버

거나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우유를 먹고 발생하며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들이나 노인들이 주로 걸린다. 이 균으로 인한 식중독은 설사 뿐만 아니라 용혈성 빈혈, 혈소판 감소증, 급성 신부전 등 심각한 합병증도 일으켜서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캄필로박터균 식중독은 주로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통해서 감염되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식중독의 증상이 나타나면 위와 같은 원인들로 식중독 증상이 나타나고 특히 설사를 할 때, 대부분 건강한 성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사의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겠다. 복통 및 심한 구토증과 열이 동반될 때, 대변에 혈액이나 점액이 묻어나올 때, 입이 마르고 소변 횟수가 줄고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건조해질 때, 힘이 없고 어지러우며 맥박이 빨라질 때 등이다. 특히 어린이나 노인은 설사 양이 적어도 위와 같은 증상들이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설사가 날 때는 우유, 유제품, 요구르트, 신 과일, 과일 주스, 익히지 않은 음식, 찬 음식, 기름기가 많은 음식, 맵고 자극적인 음식, 술, 커피 등을 피하고 미음이나 쌀죽 등 주로 소화되기 쉬운 것으

로 먹고, 반찬은 담백하고 부드럽고 따뜻한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또한 충분한 수분 공급도 해주어야 하는데 땀이 보일 때 물 리터에 설탕 두 티스푼,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서 마시면 전해질 보충도 될 수 있다. 이렇게 해도 설사가 계속되거나 복통이 지속될 시에는 항생제나 수액 요법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의사의 진료를 받는 것이 좋겠다.

식중독은 예방만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질환이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3대 요령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손은 비누를 사용해 손가락 사이사이의 물 손 등까지 골고루 흐르는 물로 2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음식물은 중심부 온도가 74℃를 넘도록하고, 1분 이상 조리하여 속까지 충분히 익혀서 먹어야 한다.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한다.

이 외에도 나들이, 학교 현장 체험 학습, 야유회 등을 갈 경우 이동 중 준비해 간 김밥, 도시락 등의 보관 온도가 높아 지거나 보관 시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아이스박스를 사용하는 등 음식물 섭취 및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은 육류나 어패류 등을 취급한 칼, 도마와 교차 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분해 사용해야 하며, 만약 별도의 칼, 도마가 없을 경우에는 과일 및 채소류에 먼저 사용한 후 육류나 어패류에 사용해 교차 오염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社說

조선대 고강도 개혁안 실천이 관건이다

조선대가 인력 구조 조정과 재정 감축으로 155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고강도 경영 혁신안을 확정하고 개혁에 시동을 걸었다. 대학 살리기에 전 구생원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고통 분담에 뜻을 모은 결과여서 향후 성과가 주목된다.

조선대는 그제 '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 혁신 3대 원칙'을 확정했다. 학사와 행정 조직, 인건비 감축이 핵심이다. 학사 부문의 경우 모집 단위 광역화와 관리 내실화로 42억여 원을 감축하기로 했다. 유사 교과목 통합 및 강의 최소 단위 강화, 단과 대학과 산하 기관 책임 경영체 시행 등이 골자다.

구조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인력 구조 개편에서도 17개 단과 대학을 13개 이내로, 학과별 모집 단위를 85개에서 50개 이내로 감축하고 신규 인력 채용을 줄이는 방안이 채택됐다. 이를 통해 30억여 원의 재정을 절감한다. 교직원 보수 체계 개편도 눈길을 끈다. 대학 산하 의료 기관의 임상 교원 인건비를 80% 이상을 병원과 치과 병원이 자체

부담하고 교직원의 각종 수당을 조정해 83억여 원을 줄이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인력과 인건비의 10%를 감축하는 이번 혁신안은 지난 11일 발표한 구조 개혁 5대 원칙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이다. 대학 측은 2-3년 내 구조 개혁을 달성해 절감한 재정을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활용하고 특성화 분야 육성에 지원해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대학 기본 역량 진단 1단계 평가에서 우수 대학(자율 개선 대학)에 포함되지 못해 설립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한 조선대는 비대하고 방만한 학사·행정 조직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혁신안은 이러한 고질적인 병폐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관건은 실천이다. 대학 구생원 모두가 변화의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감안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다음 달 교육부의 2단계 평가를 통과하고 재도약의 기틀을 다져야 할 것이다.

선제적 대응으로 적조 피해 최소화해야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계속되면서 적조 발생 확산이 우려된다. 바다 수온 역시 28도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양식장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해파리 개체 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국립 수산과학원은 지난 24일 고충군과 여수 해역에 적조 주의보를, 여수-장흥 특관만 전역에 고수주의보를 각각 발령했다. 적조 주의보는 적조 원인생물(코클로디니움)이 ml당 100개체 이상일 때 발령되는데, 2016년과 비교해 보면 25일이나 빠른 것이다.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가두리 양식장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함평 주포항 인근 돌돔 양식장에서 6만 5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여수 해역 등지의 바다 수온 상승에 따라 양식 생물 피해도 우려되고 있는데 육상의 넓지 양식장과 해상의 조피해락, 전북 가두리 양식장에서 주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양식 어가에서는 어장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전남도는 지난 5일부터 적조 대책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황토 7만5000톤과 황토 살포기 등 공공용 방제 장비 19대와 민간 방제 장비 4525대도 확보했다. 유해성 적조는 매년 여름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2015년엔 전남 지역에서 적조로 인해 어패류 2300만 마리, 그리고 2016년엔 4510만 마리가 폐사해 모두 535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다행히 지난해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바다 수온 상승에 따라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당국은 적조의 원인인 육상의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한편 밀식을 지양하는 친환경적 양식과 먹이 공급량 줄이기, 차광막 설치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초동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無等鼓

올 봄 열린 나희덕 작가의 '시인의 사진, 시인의 그림'전을 보고 난 뒤 마음에 남는 작품이 있었다. 흔들리듯 짙힌 자작 나무 풍경이었다. 시인은 이 사진을 달리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안에서 찍었다고 했다. 웬지 동화적 느낌이 나는 하얀색 줄기의 자작나무와 많은 이들의 '로망'으로 자리 잡은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 두 단어에 캔슬레 마음이 설렜던 모양이다. 최근 부쩍 '시베리아 횡단 열차'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an Way)이다. 모스크바를 출발해 시베리아 평원을 지나 블라디보스토크에 이르는 9288km 길이의 세계 최장 철도로, 전 구간을 달리려면 150시간이 걸린다. 횡단 열차는 알렉산드로 3세의 명령으로 1891년 첼랴빈스키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첫 삼을 뒀고 1916년 아무르강 철교가 개통되면서 비로소 길이 열렸다. 열차가 통과하는 도시는 87곳, 강은 16개에 이른다. 열차가 지나는 바이칼 호수 연안 길이만 해도 207km. 본선 구간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

물론 '올 여름 휴가 때 열차를 탈 예정'이라며 기대에 부푼 이들을 만나기도 했다. 얼마 전인 티뷰한 '시베리안 나이트'의 저자 박대일 씨는 시베리아 전문 여행사 대표로 횡단 열차만 100번도 넘게 뒀는데, 그에게 물으니 승객 중 많은 수가 '닥터 지바고'를 보고 나서 꿈을 꿔다고 하더라. 평생소원이었다며 감격해 하는 이가 있는가하면 '새벽 어스름 도열해 있는 자작나무를 따라 밤이 여행하는 풍경'에 마음을 빼앗겼다고 고백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 (Train-Siberian railway)의 공식 명칭은 '위대한 시베리아의 길' (The great Siberi-

만 7년의 시간대 변화를 겪는다고 하니 열차나 장거리 철도인지 짐작할 만하다.

가수 김원중은 10여 년 전부터 자동차로 광주에서 출발해 북한과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 베를린에서 공연하는 '시베리아 프로젝트'를 꿈꿨다. 어제 전남 지역 청소년들은 '전남 독서토론 열차학교'를 타고 시베리아 횡단에 나섰다. 지난 6월 러시아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한국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한반도 남쪽 끝 부산까지 다다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많은 이들이 꾸었던 '꿈이 '현실'이 되는 그날을 기다려 본다. /김미는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燦	
1952년 4월 20일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경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관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649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220-0632	220-065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663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220-0664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220-0642	220-0697	(FAX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